

총선 스타트... 주말·휴일 '호남 세몰이'



**더민주, 27일 광주서 중앙 선대위 출범식 "경제실정 8년 심판"
국민의당, 지도부 목표·광주·전주 '호남 투어' 총선 필수 대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이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공천 작업을 마친 여야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대로 당을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본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4면>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실정 8년 심판'을 제기하며 대외 공격의 서막을 알렸다. 김종인 대표는 자신과 함께 중랑감 있는 인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배치할 예정이며, 진영 의원과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로 거론하고 있지만 호남의 '반문(반문재인) 정서' 탓에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은 김한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 선대위원장 인선 대신 지역별 선대위원장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박지원·주승용, 광주 천정배·박주선, 전북 정동영·유성엽, 서울 안철수, 경기 김영환, 인천 문병호, 충청 이상돈 등으로 세분화해 효과적인 선거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순환 지원에 나서는 가 하면 지역 이슈 및 판세 등에 따라 선대위원장이 집결,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서려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 심판론'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내세우

고 있으나 공천 후유증에 인한 지도부 갈등 사태로 아직 전열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 탈당 등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전체적인 총선 구도가 일대야(一與野)에서 다야다(多與野)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호남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총력전이 펼쳐진다.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는 물론 야당으로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오는 26~27일 전남과 광주에 머물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후보 등록 이후,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첫 지방 방문지로 호남을 택한 것이

다. 더민주는 오는 27일 중앙 선대위 출범식도 광주에서 개최하는 등 선거전 초반 호남 세몰이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오는 26~27일 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 전체가 목포와 광주, 전주를 도는 '호남 투어'를 검토하고 있다.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으로 복상시킨다는 것이다. 호남 후보들은 광주에 모여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총선 필수 대외를 가질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주도권 확보 여부는 수도권 전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양당 지도부의 호남 구애 경쟁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야권의 미래 비전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호남 민심은 막판이나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어서 두 야당은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산강 하구둑 막아 습지 5분의 1로 감소 섬진강 댐 건설로 바닷물 유입 피해 급증 하구 생태계 복원 나서야

광주전남연구원 "정부 대책 시급"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과 섬진강 끝자락이 독이나 방조제에 가로막히고 바닷물 유입 구간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계 단절, 생물다양성 훼손, 수질 오염, 인근 주민 생계난 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전리터스인포'에서 "영산강·섬진강 하구생태계 복원 위해 정부와 지자체 머리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구 및 연안의 간척사업과 댐 건설에 의한 유출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등을 포함한 서남해안 하구의 생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특히 영산강은 1981년 하구둑이 들어선지 35년이 지나면서 수질 및 준설토 오염,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환경부가 작성한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 바다와 접해 있는 하구 오염 척도가 되는 부착·저서동물의 생태계 건강성이 불량인 D등급으로 파악됐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산업단지, 신도시 등을 개발하면서 습지가 줄고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됐기 때문이다.

섬진강은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북댐, 수어댐 등 수자원 개발로 하류의 유출량이 감소하면서 하구에 바닷물이 유입돼 갈수록 염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인 김종일 남도가립연구소

터장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 습지면적은 지난 1910년대 309km²에서 90여년 만인 2000년대 73km²로 5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하구둑과 방조제 건설에 의한 습지면적 및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해 그 가치도 급감하고 있다. 메타분석을 이용해 편익이전 방법으로 추정된 영산강 하구습지의 ha당 연간 환경가치는 671만원에 불과한 반면 하구둑이 없는 한강과 섬진강의 하구는 각각 4294만원, 2654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 센터장은 "영산강·섬진강권에 위치한 128개 하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4개의 하구가 하구둑이나 방조제 등으로 막혀 있고, 이로 인해 생태계 단절, 생물다양성 훼손, 수질 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섬진강은 해수 유입 구간이 크게 확장되면서 지하수 염분 농도가 증가하는 등의 염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2000년대 중반에 영산강 하구둑 복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중단했으며, 부산시와 충남도는 낙동강과 금강 하구생태계 복원을 민선 6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최근 확정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도 연안·해양생태계 관리 과제에 '하구연복원'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하구생태계 복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북구를 총선 후보 등록 4·13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광주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북구 을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국민의당 최경환·민중연합당 윤민호·무소속 노남수 후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후보등록 첫날 광주 19명·전남 30명 등록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각각 19명, 30명 등 모두 49명이 등록했다. 이에 따라 8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광주 지역은 2.4대 1, 1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전남지역은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25일 등록이 마감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총선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현재 선거 후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후보는 광주 19명, 전남은 3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동남읍은

더민주 이병훈 후보 1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동남갑 3명, 서구갑과 을 각 1명씩 등이 접수했다. 광주지역 현역 의원으로는 김동철 의원이 이날 등록을 했으며, 나머지 현역 의원들은 25일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목포에는 현역 의원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등록을 하는 등 모두 7명

이 등록에 가장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5명, 영암·무안·신안에 4명, 순천과 고흥·보성·장흥·강진에 각 3명씩, 나주·화순과 담양·함평·장성·영광, 해남·완도·진도에 각각 2명씩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수 갑에는 1명이, 여수을에는 2명이 등록했다.

제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 등록에는 더민주 홍진태 후보만이 등록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신 팔도유람-충남서 원기충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S 300h(에기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 16.4km/ℓ(도시연비 : 16.1km/ℓ, 고속도로연비 : 16.7km/ℓ), 복합CO₂ 배출량 : 103g/km, 등급 :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악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